*영어어문교육, 14*권 **4**호 **2008**년 겨울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어휘력 실태 조사*

박정란*
(나사렛대학교)
이현구*
(나사렛대학교)
임정완*
(대구대학교)

Park, Jung-ran, Lee, Hyun Gu & Lim, Jeongwan. (2008). A measurement of the lexical ability of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47-272.

This study examines the lexical ability of hearing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10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as a control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including their background information and the measurement of their lexical ability and were analyzed by the use of the SAS 8.2 statistical program.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a) the lexical ability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is far less than the one of the control group, especially on the level of middle and high school lexis; (b)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xical ability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and their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ir hearing impaired age and their impairing level was found to be somewhat correlated; and (c) more importantly,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difficulty about learning English is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control group and they were less exposed to learn English from the beginning. The discuss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lexical ability, which can help develop, adapt and disseminate sound and practic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glish lexical ability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lexical ability/hearing impaired students/deaf students/university students, 어휘능력/장애학생/농학생/대학생]

---

* 공동저자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21 세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접하게 되는 영어는 국제공통어인 동시에 수많은 정보습득을 위한 하나의 언어로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영어로 된 웹사이트가 78%를 차지하고 있으며(인터넷 조선, 2000. 12. 13 일자),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있는 모든 방송 중에서 영어로 된 정보가 방송은 60%, 우편물은 70%, 전화통화는 85%, 컴퓨터는 80%가 된다는 통계의 수치를 보면 영어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박원, 1996).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94 년에 '세계화'를 국정 운영의 지표로 선언하였고, 1997 년부터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그 중요성을 부각하여 영어를 정규교과로 도입하였고,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주당 2 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부흥에 발맞추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영어는 필수가 되었다. 즉,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건청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청 학생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일상생활, 가족이나 매스컴, 주변 사람들의 언어사용 등을 통한 우연적인 학습의 기회에 많이 노출되어 모국어나 외국어를 습득,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청력손실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형식적인 학습에 치중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 장애인의 수는 204,233 명[1] 으로 통계하고 있으나 한국농아인 협회에서는 미 등록자까지 포함하여 35 만에서 40 만 명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 중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는 대략 300~400 명(한국 농 대학생 연합회, 2008)[2] 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논문은 대부분이 초등(이수연, 최성규, 2007; 조경희, 2003) 또는 초등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박선희, 김정모, 2001)으로써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교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또한 청각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영어 교과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 어휘력 수준 실태를 알아보고, 적절한 학습지도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2007,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2] 한국 농 대학생 연합회에서 추측하고 있는 숫자이며, 공식적으로 전체 청각대학생의 정확한 숫자의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각 장애의 정의

청각장애란 우리 몸의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인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엔가 손상(impaired)을 입어 음성언어를 비롯해서 소리를 듣는 능력에 결함(disability)을 지니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다양한 정도를 포괄해서 청각장애라 일컫는다.

청각장애를 지칭하는 '농'(deafness)의 상태는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애' 이면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 아주 명백한 교육적·사회적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정의는 미국 농 학교 집행위원회의 용어 정의 위원회에서 내린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청각장애란 가벼운 것에서 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청각결함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는 농과 난청으로 대별된다. 농(deaf)은 보청기를 착용하든 않든 간에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성공적 절차가 불가능한 자이고,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자이다. 청각장애를 농과 난청으로 구별하여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처리가 가능한 자를 난청이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자를 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는 청력검사를 통해 진단하여 난청은 경도, 중도, 고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농과 난청의 구분은 임상적으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청력손실의 정도, 시기, 유형, 원인, 조기교육을 받은 시기, 보청기 착용의 훈련 유무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정해야 한다.

농인은 청력, 즉 소리의 강도나 크기는 데시벨(Decibels=dB)로 측정되는 데 농(deaf)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청력손실도가 90dB 이상(최중도)인 농인은 출생 때부터 농아로 태어난 선천성과 병이나 사고로 청력을 잃은 후천성 농인이 있다(박정란, 2008).

난청(difficulty in hearing)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언어정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이 남아있어 큰소리로 말을 해야 들리는 경우이다. 이준우(2002)는 70-89dB(중도난청), 55-69dB(중등도 난청), 35-54dB(경도난청)으로 구분하며, 김승국 외(2006)에는 경도 및 중등도 (20-60dB), 중도(60-90dB), 최중도(90dB 이상)으로 Lowenbraun(1988)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어 학자별 난청의 청력손실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Ries(1986)에 따르면 청력손실 정도 별 말을 이해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청력손실 정도 별 말을 이해하는 정도

잘 들리는 귀의 청력 실도	말을 이해하는 정도
91dB 이상	어떤 말도 이해할 수 없다
71-90dB	속삭이는 소리, 보통 말소리, 큰소리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
41-70dB	큰소리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
26-40dB	속삭이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
26dB 이하	보통 속삭이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청각장애를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등 5 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등급에 따라 들리는 정도가 다르며 청력손실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 청각장애 등급: 1991 년 청각장애인의 날인 6 월 3 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발표한 장애등급과 그 기준규정은 표 2 와 같다.

표 2
장애등급[3]과 기준규정

장애등급	기준규정
2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 급	1 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70dB 이상 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 인 사람 (40 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되는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 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출처: 권선진(2007)

또한, deaf 와 Deaf 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소문자 d 는 병리적인 차원에서, 대문자 D 를 사용할 때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농인을 뜻할 때 사용한다.

[3] 장애등급은 1 급에서 6 급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장애범주에 따라 장애등급은 각각 다르다. 청각장애는 1 급이 없으며 중복장애일 때 1 급이 가능하다.

2. 청각 장애인의 읽기 교육

청각장애는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육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구성하게 된다. 교육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교육행위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없다. 농인들이 수반하는 듣기 장애는 필연적으로 음성언어의 수용과 표현에 제약을 가져오게 하고, 농 아동의 교육(학습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성옥과 강윤주(2002)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의 부모와 교사는 건청인이므로 영어를 수화기호로 나타내거나 동시적 의사소통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언어 입력(input)이 거의 없는 환경에 있는 농아동이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인 수화, 두 가지 양식을 동시에 사용함으로 건청인과 또 다른 교육적 문제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교육적 문제는 그들이 나타내는 기초학력이 일반 건청인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는 결코 인지능력의 장애를 수반하지 않음에도, 기초학력 가운데 읽기능력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년에 해당되는 12 년간의 학교교육을 받고도 건청인 아동의 3-4 학년 수준에도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dams, Foorman, Lundberg, Beeler, 1998; 이준우, 2002 재인용). 김병하 외(2005)에 의하면 Pintner 와 Patterson(1916)은 전국적으로 읽기평가 상의 청각장애 학생의 중앙치가 어느 연령에서건 8 세 건청 아동의 중앙치에 도달치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60 년이 지난 1970 년대에도 성취수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음을 보여주었다. Trybus 와 Karchmer(1977)는 6,871 명의 유층무선표집된 농학생들이 20 세 이상의 연령에서 읽기 중앙치가 일반아동의 4, 5 학년과 동등함을 발견했다. 또한, Quigley 와 그의 동료들(1976)도 미국 내의 450 명에 이르는 유층무선표집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통사구조들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였는데 8 세 건청 아동들이 보편적인 18 세 청각장애 학생을 능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수동태: The boy was helped by the girl.
관계사: The boy who kissed the girl ran away.
보 어: The boy learned the ball broke the window.
명사상당어구: The opening of the door surprised the cat.

미국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The boy helped the girl.
The girl ran away.
The boy learned the ball.

The door surprised the cat.

읽기자료들의 분석에서 청각장애 학생은 심지어 18 세가 되어서도 매우 초보적인 독본들이 나타난 통사구조들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Quigley, Wilbur, Power, Montanelli, & Steinkamp, 1976, 김병하 외, 2005 재인용). 특별히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미국 Gallaudet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학력성취에 대한 1988 년 신입생 학업성취 점수에 따른 개요에 보면, 읽기 10.4 학년 수준에 있는 학생은 미국 전체 청각장애 학생의 2%, 7-8 학년의 수준에 있는 학생은 7%에 해당되며(Goodstein, 1988), 청각장애 학생의 평균 읽기수준은 대개 초등학교 4 학년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Allen, 1986).

위 연구 결과같이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청각장애 학생이 문장 이해력 또한 낮은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는 음성언어같이 조사사용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한글 필기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경우 대다수의 농인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현재 농 학교 영어교육을 살펴보면 교사는 영어 단어의 발음을 지화로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특수교사가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은 건청인 학생들 속에서 건청인 학생의 영어 교육을 동일하게 지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에서도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별도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세계의 청각장애인들과 서로 교류하며 정보제공을 하며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여러 교육은 꼭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은 건청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에게도 필수적인 과제이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최적한 언어투입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라 적합한 의사소통양식이 개방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란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Erting(1982)과 Sacks(1988)는 건청인에 의해 설계 되어진 세계 속에서 청각 장애인들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적응은 시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Johnson, Liddell, 그리고 Erting(1989)에 의하면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쓰기가 영어숙달의 유일한 형식이 된다고 한다. 언어습득 이후 청각 장애가 된 아동, 실제적인 잔존 청력을 가진 학생, 청력손실이 심한 학생 등은 말하기, 듣기, 읽기 기능 발달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수화나 다른 어떠한 언어도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즉 일방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영어를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사의 음성이나 수화를 통해 영어를 습득하며 통역자의 수화는 학생에게 영어의 적절한 모델을 제공해 주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일대 일의 의사소통 없이는 언어를 학습할 기회도 거의 없다(김병하, 강창욱, 최영주, 2005 재인용).

청각장애 학생도 건청 학생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실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학습이 개개 청각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영어입력이 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 학생이 영어문장(단어)을 이해하고 쓰는 기능의 습득은 청각장애 학생의 청능에 따른 영어어휘력의 토대가 될 때, 입술 읽기, ASL 를 번역하기, 쓰기, 나아가 문장이해력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어휘력 수준 실태를 파악하고자 건청 대학생의 어휘력 수준과 비교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어휘변별력은 초등, 중등, 고등 영어어휘 수준에서 건청 대학생의 어휘변별력과 비교하여 어떠한 실태에 있는가?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 특성과 영어어휘 변별력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셋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학습시기와 학습방법은 어떠하며, 이들이 느끼는 영어학습의 어려움은 건청 대학생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지역은 천안시 소재 N 대학과 경산시 소재 D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이다. 대상자 수는 총 100 명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N 대학의 청각장애 대학생 25 명과 건청 대학생 25 명, D 대학의 청각장애 대학생 25 명과 건청 대학생 25 명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 과 같다.

청각장애 대학생 50 명 중 성별로는 남자대학생이 70%로 여자대학생 30%보다 더 많았으며 건청 대학생 50 명 중 남자대학생이 50%, 여자대학생이 50%로 구성되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2 세였으며, 건청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1.5 세로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대학생의 평균 나이가 건청 대학생의 나이보다 0.5 세 더 많았다. 즉 고학년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성별 및 나이

구 분		청각장애 대학생(%)	건청 대학생(%)	계
성별	남	35(70%)	25(50%)	60
	여	15(30%)	25(50%)	40
나이	18~19	3(6%)	21(42%)	24
	20~24	43(86%)	25(50%)	68
	25 이상	4(8%)	4(8%)	8

청각장애 대학생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청력상태, 장애등급, 청각발생시기, 부모의 청각장애 정도, 대화방법, 수화사용 정도, 출신학교, 교사와의 대화방법 등에 대한 설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 와 같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청력 상태는 농 학생이 전체의 56%로 난청 학생 44%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장애등급으로는 청각장애 2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82%로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 발생시기는 언어습득이 이루어지기 전인 3 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6%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3 세 이후가 24%에 해당되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다수인 85%는 부모가 청각장애가 없었으며, 14%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 슬하에서 교육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화방법으로는 수화사용이 전체의 34%에 해당되었으며, 나머지는 구화사용이 20%이고, 필담 및 몸짓 등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44%에 해당되어 가장 많았다. 수화사용의 정도는 조금 하는 경우가 42%에 해당되었고, 한글수화와 농 수화를 하는 경우가 각각 26%에 해당되었으며, 전혀 수화를 하지 못하는 학생도 6%가 있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이 졸업한 초, 중,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농 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각 70%, 66%, 57%로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 특성

구 분		
청력상태	농	28(56%)
	난청	22(44%)
장애등급	2 급	41(82%)
	3 급	8(16%)
	4 급	1(2%)
청각장애발생시기	선천성	8(16%)
	0~3 세	30(60%)
	3~7 세	8(8%)
	초등학교이후	1(2%)
	기타	3(6%)

부모청각장애정도		없음	43(85.71%)
		있음	7(14.29%)
대화방법		수화	17(34.69%)
		구화	10(20.41%)
		필담	0(0%)
		몸짓	0(0%)
		기타	0(0%)
		모두 사용	22(44.90%)
수화사용정도		전혀못함	3(6.0%)
		조금함	21(42%)
		한글수화	13(26%)
		한국수화(농수화)	13(26%)
출신학교	초등학교	일반학교	35(70%)
		농학교	14(28%)
		기타	1(2%)
	중학교	일반학교	33(66%)
		농학교	16(32%)
		기타	1(2%)
	고등학교	일반학교	28(57.14%)
		농학교	20(40.82%)
		기타	1(2.04%)
교사와의 대화방법		수화	14(28.00%)
		구화	20(40.00%)
		필담	3(6.00%)
		몸짓	0(0%)
		기타	0(0%)
		모두 사용	13(26.00%)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 작성, 지역별 대학생 설문조사, 설문 결과 분석 등의 세 가지 절차를 따랐다.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목적에 알맞게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준비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조사는 10 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 정리 및 설문 결과 내용 정리를 거쳐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AS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청력상태, 장애등급, 청각발생시기, 부모의 청각장애 정도, 대화방법, 수화사용 정도, 출신학교, 교사와의 대화방법 등의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어휘

변별력과 그들의 장애유형과 어휘변별력간의 관계, 출신학교와 어휘변별력간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chi 2$ 검증과 빈도분석 그리고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영어학습에 대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배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와 영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지(부록)로 구성하였다. 어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영어 어휘를 각각의 영어 교과서에서 발췌하였고,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을 건청 대학생들과 비교하였다.

초등학교 영어 어휘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출판한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NLPTools 를 이용한 코퍼스적 어휘 분석 (김낙복, 2005; 김영은, 2008)을 하여 이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내용어(content words) 중에서 명사 7 개, 동사 7 개, 형용사 7 개를 선택하였으며, 명사에서 고유명사는 제외시켰다. 동사는 일반 동사로 한정하였다.

표 5

빈도수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어휘

빈도 순위	명사	동사	형용사
1	time	let	good
2	book	listen	sorry
3	name	do	nice
4	pencil	thank	great
5	mouth	play	much
6	pen	go	happy
7	game	repeat	bad

중학교 어휘는 교학사, 대한교과서, 두산, 디딤돌, 중앙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청색, 현대 등 총 9 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영어교과서를 NLPTools 를 이용한 코퍼스적 어휘 분석(빈도수)을 하여 내용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명사 7 개, 동사 7 개, 형용사 7 개를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중학교 영어 어휘와 중복되는 초등학교 어휘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명사에서 고유명사는 제외시켰다. 동사는 일반 동사로 한정하였다.

표 6

빈도수에 따른 중학교 영어어휘

빈도 순위	명사	동사	형용사
1	space	care	foreign
2	weather	leave	special
3	country	decide	favorite

4	topic	reach	physical
5	mind	lead	proud
6	plant	happen	terrible
7	habit	shake	stupid

고등학교 어휘는 천재교육, 금성, 능률, 대한 교과서, 장원, 법문사, 시사영어사, 중앙교육, 대한 교육미디어, 지학사, 현대 등 총 10 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영어교과서를 이용한 NLPTools 를 코퍼스적 어휘 분석(빈도수)을 하여 내용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명사 7 개, 동사 7 개, 형용사 7 개를 선택하였다. 고등학교 영어 어휘와 중복되는 중학교 영어 어휘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명사에서 고유명사는 제외시켰다. 동사는 일반 동사로 한정하였다.

표 7

빈도수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어휘

빈도 순위	명사	동사	형용사
1	society	divide	tiny
2	addition	contain	social
3	rule	consider	diverse
4	mistake	connect	various
5	death	survive	similar
6	species	pierce	unique
7	effect	disappear	polite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어휘변별력

1) 지역별 어휘변별력

먼저 두 개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기에 이 두 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연구 참여자의 어휘변별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역에 따른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어휘변별력은 유의확률(p-value)이 모두 0.05 보다 크기 때문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8
지역별 어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t 값	자유도[4]
초등어휘력	N 대학	50	16.7	6.8101	3.01	-1.31	78.3
	D 대학	50	18.16	3.9246			
중등어휘력	N 대학	50	11.12	7.6656	1.32	0.43	98
	D 대학	50	10.5	6.6769			
고등어휘력	N 대학	50	8.88	7.7713	1.57	0.85	98
	D 대학	50	7.68	6.2022			

p>.05

표 9
청각장애 대학생의 어휘변별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t 값	자유도
초등어휘력	N 대학	25	12.96	8.0647	3.21	-1.60	37.6
	D 대학	25	15.92	4.4993			
중등어휘력	N 대학	25	6.32	7.2613	1.44	0.23	48
	D 대학	25	5.88	6.0575			
고등어휘력	N 대학	25	5.84	7.3806	2.06	1.02	48
	D 대학	25	4	5.1397			

p>.05

표 10
건청대학생의 어휘변별력

구분		N	Mean	SD	F 값	t 값	자유도
초등어휘력	N 대학	25	20.44	0.7118	1.48	0.18	48
	D 대학	25	20.4	0.866			
중등어휘력	N 대학	25	15.92	4.3867	1.95	0.74	48
	D 대학	25	15.12	3.1401			
고등어휘력	N 대학	25	11.92	7.0411	2.07	0.33	48
	D 대학	25	11.36	4.8894			

p>.05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대구소재의 D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이 초등 어휘변별력에서 약간 더 나은 점수를 받았으나, 중등과 고등 어휘변별력에서는 천안소재의 N 대학에 다니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4]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Satterthwaite 의 자유도를 사용한다.

나왔으며, 이는 유의도 5%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건청 대학생의 경우 지역과는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 거의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어휘 변별력에는 지역 간의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초등, 중등, 고등 어휘 수준에 있어 청각장애 대학생이 건청 대학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에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초등어휘 수준

청각장애 대학생의 초등어휘력 평균은 14.44 이고, 건청 대학생의 초등어휘력 평균은 20.42 이다. 두 집단간의 초등어휘력 평균 차이는 -5.98 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일성(Equality of Variances)에 대한 검정통계량(F-value)은 71.45, 유의확률(p-value)은 0.01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으며, 청각장애 유무에 따른 영어어휘력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검정통계량(t-value)은 -6.33 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어휘 수준에 있어서 건청 대학생이 청각장애 대학생보다 어휘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초등어휘 변별력

구 분	N	Mean	SD	F 값	t(F)	자유도(df')
청각장애대학생	50	14.44	6.63	71.45	-6.33***	50.4
건청대학생	50	20.42	0.78			
전 체	100					

***P<.0001

3) 중등어휘 수준

청각장애 대학생의 중등어휘력 평균은 6.1 이고, 건청 대학생의 평균은 15.52 이다. 두 집단의 중등어휘력의 평균 차이가 -9.42 로서 초등어휘 변별력의 평균 차이 보다 더 큼을 알 수 있고, 분포도가 더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04 이고 p 값은 0.0001 이하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으며, 아래의 표 12 와 같이, 장애와 건청에 따른 중등어휘 변별력 평균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등어휘 변별력에 있어서 청각장애 대학생보다 건청 대학생의 어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중등어휘 변별력

구 분	N	Mean	SD	F 값	t(F)	자유도
청각장애대학생	50	6.10	6.62	3.04	-8.73***	78.1
건청대학생	50	15.52	3.79			
전 체	100					

***P<.0001

4) 고등어휘 수준

청각장애 대학생의 고등어휘 변별력 평균은 4.92 이고, 건청 대학생의 고등어휘 변별력 평균은 11.64 이다. 두 집단의 고등어휘 변별력의 차이는 -6.72 로 나타났다. 이때 F 값의 유의수준이 기각 역을 넘어 (p>.05) 분산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한(p<0.0001) 차이가 있어 청각장애 대학생은 건청 대학생보다 고등어휘 변별력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13
고등어휘 변별력

구 분	N	Mean	SD	F 값	t(F)	자유도
청각장애 대학생	50	4.92	6.36	1.12	-5.43***	
건청 대학생	50	11.64	6.00			
전 체	100					

***P<.0001

2. 청각장애 대학생의 특성과 어휘변별력간의 상관관계

1) 청각장애 대학생의 청력 상태에 따른 분석

청각장애 대학생은 청력 상태에 따라 보청기를 사용해서도 듣기가 전혀 되지 않는 농 대학생과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리가 들리는 난청 대학생으로 나뉘어 진다. 농 대학생과 난청 대학생의 초등 어휘변별력은 아래 표 14 에서 보듯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등, 고등어휘력은 5% 유의수준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발생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농 대학생과 난청 대학생의 영어어휘력 차이는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14

청각장애 대학생의 청력상태에 따른 영어어휘력

구 분		N	Mean	SD	F 값	t 값	자유도
초등어휘력	농	28	13.32	6.48	1.06	-1.35	48
	난청	22	15.86	6.69			
중등어휘력	농	28	4.32	5.46	1.82*	-2.15	37.6
	난청	22	8.36	7.37			
고등어휘력	농	28	2.92	5.08	1.90*	-2.55	37
	난청	22	7.45	7.01			
전 체							

*p<0.05

2) 청각장애 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어휘변별력과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일반학교와 농 학교의 이동이 있는 경우 12 개의 사례를 배제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 출신 26 개의 사례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농 학교 출신 12 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검증하였다. 일반학교 출신의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어휘력은 31.54 였고, 농 학교 출신의 영어어휘력은 19.5 로 나타났다. 이 때 F 값이 3.53 으로 출신학교별 평균 어휘력 취득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p<.05)하였다. 일반학교 출신 26 명 중 농 대학생(deaf)은 9 명이었고, 그 중 한 명만 3 급이었으며 8 명은 2 급이었다.

표 15

출신학교에 따른 어휘력 취득 점수

학교유형	N	Mean	SD	F 값	t 값
일반학교	26	31.54	20.30	3.53*	2.30
농 학교	12	19.50	10.80		
계	38				

*p<.05

3)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 등급별 어휘력 수준

장애등급과 초등어휘 변별력과의 상관관계는 검정통계량이 1.43 이고, 유의확률은 0.83 으로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과 어휘변별력간의 관계는 다음 표 16 와 같다.

표 16

장애등급별 초등어휘력 수준

장애등급	상	중	하	계
2 급	24 명 (58.54%)	10 명 (24.39%)	7 명 (17.07%)	41 명
3 급	6 명 (33.33%)	1 명 (25.0%)	1 명 (41.67%)	8 명
4 급	1 명 (100.0%)	0 명 (0.0%)	0 명 (0.0%)	1 명
계	31 명	11 명	8 명	50 명

χ^2=1.4357, df=4, p=0.8380

그러나 표 17 와 18 에서 중등어휘 변별력과 고등어휘 변별력은 장애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중등어휘 변별력과 고등어휘 변별력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p<0.01$)으로 나타났다.

표 17

장애등급별 중등어휘력 수준

장애등급	상	중	하	계
2 급	2 명 (4.88%)	10 명 (24.39%)	29 명 (70.73%)	41 명
3 급	3 명 (37.50%)	3 명 (37.50%)	2 명 (25.00%)	8 명
4 급	1 명 (100.0%)	0 명 (0.0%)	0 명 (0.0%)	1 명
계	6 명	13 명	31 명	50 명

χ^2==16.1198, df=4, p<0.01

표 18

장애등급별 고등어휘력 수준

장애등급	상	중	하	계
2 급	2 명 (4.88%)	6 명 (14.63%)	33 명 (80.49%)	41 명
3 급	2 명 (25.00%)	3 명 (37.50%)	3 명 (37.50%)	8 명
4 급	1 명 (100.0%)	0 명 (0.0%)	0 명 (0.0%)	1 명
계	5 명	9 명	36 명	50 명

χ^2==15.5564, df=4, p<0.01

3. 영어학습에 대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인식

1) 영어학습의 시작 시기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학습 시작 시기는 건청 대학생과 비교하여 훨씬 늦게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건청 대학생은 중학교 이후 영어 학습 시작 시기가 26% 비해 청각 대학생은 중학교 이후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44%에 해당되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시기가 건청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건청 대학생의 평균연령이 21.5 세 임에 비해 청각장애 대학생의 평균연령이 22 세로서 고학년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9
영어학습 시작 시기

영어학습시작시기	청각장애 대학생	건청 대학생	계
초등학교 전	4 명 (8%)	6 명 (12%)	10 명 (20%)
초등학교	24 명 (48%)	31 명 (62%)	55 명 (100%)
중학교	20 명 (40%)	13 명 (26%)	33 명 (66%)
고등학교	1 명 (2%)	0 명 (0%)	1 명 (2%)
대학교 이후	1 명 (2%)	0 명 (0%)	1 명 (2%)

2) 영어학습지도자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 학습 지도자는 58%만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혼자서 학습하는 경우도 12%에 해당하고 부모님과 기타에 의해서가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청 대학생의 영어학습 지도자는 90%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혼자나 부모님에 의해서는 드문 경우로 나타났다.

표 20
영어학습 지도자

영어학습시작시기	청각장애대학생	건청 대학생	계
가르쳐주는이 없음	1 명 (2.0%)	0 명 (0.0%)	1 명 (2.0%)
혼자	6 명 (12.0%)	1 명 (2.0%)	7 명 (7.0%)
부모님	5 명 (10.0%)	1 명 (2.0%)	6 명 (6.0%)
친구	1 명 (2.0%)	1 명 (2.0%)	2 명 (2.0%)
이웃	1 명 (2.0%)	0 명 (0.0%)	1 명 (1.0%)
교사	29 명 (58.0%)	45 명 (90.0%)	74 명 (74.0%)
기타	7 명 (14.0%)	2 명 (4.0%)	9 명 (9.0%)

3) 학습지도 방법 및 교사와의 대화방법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는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40.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화로서 28.57%에 해당하였다. 필담과 수화, 구화, 몸짓 등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20.41%에 해당되었고, 나머지가 글로 써서 학습하는 경우로 10.20%에 해당되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사와의 대화 방법으로는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28%이며, 수화, 구화 및 필담과 몸짓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26%이고, 필담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6%로 가장 적었다.

4) 영어학습의 어려운 점

영어학습 시 어렵게 느끼는 점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아래 표 21 과 같다. 청각장애 대학생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발음을 포함한 말하기가 26%로써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두 번째가 어휘학습의 어려움이 18%에 해당되었고, 세 번째가 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12%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건청 대학생들이 느끼는 영어학습에 대한 어려움은 문법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말하기로서 20%에 해당되었고, 세 번째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으로서 14%에 해당했다.

표 21
영어학습의 어려움 인식도

영어학습의 어려운 점	청각장애대학생	건청 대학생	계
듣기	5 명 (10.0%)	2 명 (4.0%)	8 명 (14.0%)
말하기	13 명 (26.0%)	10 명 (20.0%)	23 명 (46.0%)
읽기	7 명 (14.0%)	3 명 (6.0%)	10 명 (20.0%)
쓰기	1 명 (2.0%)	3 명 (6.0%)	4 명 (8.0%)
어휘	9 명 (18.0%)	5 명 (10.0%)	14 명 (28.0%)
문법	6 명 (12.0%)	16 명 (32.0%)	22 명 (44.0%)
기타	4 명 (8.0%)	8 명 (16.0%)	12 명 (24.0%)
무응답	5 명 (10.0%)	3 명 (6.0%)	8 명 (16.0%)

V. 결론 및 제언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 어휘 변별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어휘 변별력은 건청 대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초등수준의 어휘 변별력보다는 중등과 고등 수준의 어휘 변별력에서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따라서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수준은 기존의 선행연구(김병하 외, 2005; Allen, 1986; Goodstein, 1988)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 어휘 수준은 아직도 초등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교육현장의 교수자는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Krashen(1981)의 이해가능입력(comprehensible input)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 입력을 위해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배우기 적합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교재 및 수업 방식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allaudet 대학교의 Batson 교수가 최초로 1980 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전자 넥트워크 방식의

상호작용 프로그램(Batson, 1988) 또는 Daedalus 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해 컴퓨터상의 문자와 채팅을 통해 교사와 급우간에 더욱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어휘 변별력과 그들의 청각장애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어휘 수준에서 농 대학생과 난청 대학생의 어휘변별력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등과 고등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농 대학생과 난청 대학생의 영어어휘 변별력은 차이가 커졌다. 이것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 대학생에게 영어교육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농 대학생이 초등학교 때 난청 대학생처럼 영어어휘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 역시 농 대학생에게 영어교육이 가능함을 뜻한다. 그러나 농 대학생의 어휘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농 대학생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남은 농 대학생들의 영어교육에 관한 기회부족인지, 청력 상실의 영향 때문이지 차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 대학생에게 영어교육은 건청 대학생과 난청대학생과 구별하여 별도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느끼는 영어 학습시의 어려움과 영어를 공부할 기회 측면에서 건청 대학생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로 발음 습득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말하기의 어려움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었다. 반면에 건청 대학생들은 문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두 집단의 학습자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만큼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영어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대학생의 영어수업에서는 발음 습득과 말하기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입술 읽기, ASL 번역하기,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리를 대신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영어수업시간에서 특히 영어학습을 지도해 줄 교사의 부재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에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 대학생들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도할 교사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낙복. (2005). 어휘 지도 방법이 어휘 학습전력 사용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 학생 설문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1*(3), 89-112.

김병하. 강창욱. 최영주. (2005). *청각장애와 언어*.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승국 외. (2006). *청각장애 아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김영은. (2008). 수용적 어휘 지식과 산출적 어휘 지식, 어휘 학습 전략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4*(3), 283-306.

권선진. (2007),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선희. 김정모. (2001). 청각장애 연구의 현황 분석 및 언어교육방법론. *난청과 언어장애, 24*(3), 195-211.

박원. (1996). *영어교육학*. 인천: 인하대출판부.

박정란. (2008). *실전수화*. 공동체.

보건복지부. (2000). *장애등급 판정지침서*.

이수연. 최성규. (2007). 청각장애 특수학교 초등부의 영어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특수아동교육연구, 9*(2), 145-164.

이준우. (2002). *농인재활복지개론*. 농아사회정보원.

원성옥. 강윤주. (2002). *수화교육개론*. 농아정보원.

조경희. (2003). *특수학교 초등부 영어교육의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농대학생연합회. (2008). 개인 면담.

인터넷 조선. 2000. 12. 13.

Adams, M., Foorman, B., Lundberg, I., & Beeler, T. (1998). *Phonemic awareness in young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es.

Allen, T. E. (1986). Pattern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ring impaired students: 1974-1983. In N. A. Shildroth & M. A. Karchmer (Eds), *Deaf children in America* (pp. 161-206). San Diego: College-Hill Press.

Batson, T. (1988). The ENFI project: A networked classroom to writing instruction. *Academic Computing, 2,* 32-32.

Erting, C. (1982). *Deafness, communication, and social identity: An anthrophological analysis of interaction among parents, teachers, and deaf children in a pre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Goodstein, A. (1988, Fall). *Admissions/enrollment summary*. Unpublished Memorandum. Washington, DC: Gallaudat University, 1988.

Krashen, S.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Lowenbraun, S. (1988). Hearing impaired. In E. L. Meyen & T. M. Skrtic (Eds.), *Exceptional childern and youth: An introduction* (3rd ed., pp. 321-350). Denver: Love.

Pintner, R., & Patterson, D. (1916). A measurement of the language ability of deaf children. *Psychological Review, 23,* 413-436.

Ries, P.(1986).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ed youth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of students in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hearing impaired. In A. N. Schildroth & M. A. Karchmer (Eds.), *Deaf children in America* (p.12). Austin, TX: Pro-Ed.

Quigley, S., Wilbur, R., Power, D., Montanelli, D., & Steinkamp, M. (1976). *Syntactic structures in the language deaf childre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Institute for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Sacks, O. (1988). The Revolution of the deaf. *New York Review of Books, 35*(9), 23-28.

Trybus, R., & Karchmer, M. (1977). School achievement scores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National data on achievement status and growth pattern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Directory of Programs and Services, 122*, 62-69.

부 록
청각장애대학생의 영어어휘력 설문지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고, 통계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설문의 포함된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Ⅰ. 귀하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로 적절한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_② 여_
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 귀하의 청력 상태는?
① 농 ② 난청(보청기사용하면 들림)
4. 장애등급은?
① 1 급(중복장애) ② 2 급 ③ 3 급
④ 4 급 ⑤ 5 급 ⑥ 6 급
⑦ 등록하지 않음
5. 귀하의 청각장애발병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선천성 ② 0-3 세
③ 3 세-7 세 ④ 초등학교이후_
⑤ 기타_
6. 부모님의 청각장애 정도는?
① 두 분 다 청각장애가 없으시다_
② 아버지만 청각장애인이시다_

③ 어머니만 청각장애인이시다_
④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시다_
7. 귀하가 선호하는 대화방법은?
① 수화_② 구화(말)_③ 필담(글로 쓰기)_
④ 몸짓_⑤ 기타:_⑥ 모두 사용)_
8. 귀하는 어느 정도 수화를 합니까?
① 전혀 못함_② 조금 한다_③ 잘한다(한글수화)_
④ 아주 잘한다(한국수화, 농식 수화)_
9. 출신 초등학교는 ?
① 일반학교 ② 농학교 ③ 기타
10. 출신 중학교는 ?
① 일반학교 ② 농학교 ③ 기타
11. 출신 고등학교는 ?
① 일반학교 ② 농학교 ③ 기타
12. 교사와 의사소통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화방법은?
① 수화_② 구화(말)_③ 필담(글로 쓰기)_
④ 몸짓_⑤ 기타:_⑥ 모두 사용
13. 첫 영어는 언제 배우기 시작하였습니까?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학교에서
③ 중학교에서 ④ 고등학교에서
⑤ 대학교 입학 후 ⑥ 배우지 않았다_
14. 영어공부는 주로 누가 지도해 주셨습니까?
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_② 혼자 공부했다
③ 부모님_④ 친척_⑤ 친구_
⑥ 이웃_⑦ 교사_⑧ 기타_
15. 학습을 지도해 주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습니까?
① 수화_② 구화(말)_③ 필담(글로 쓰기)_
④ 몸짓_⑤ 기타:_⑥ 모든 방법_
16. 영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Ⅱ. 어휘변별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A.
1.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1) time
2) book
3) name
4) let

5) listen
6) do
7) good
8) sorry
9) nice

2. 다음 단어의 뜻에 가장 알맞은 것과 줄을 그어 연결시키시오.

10) pencil ▪ 감사하다
11) mouth ▪ 위대한
12) thank ▪ 많은
13) play ▪ 연필
14) great ▪ 놀다
15) much ▪ 입

3. 다음의 공란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16) I am very _____ .
17) It is a _____ cat.
18) I _____ to school.
19) Listen and _____.
20) It's a computer _____.
21) There is a _____on the desk.

<보기> happy pen go game repeat bad

B.

1.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1) space
2) weather
3) country
4) leave
5) care
6) decide
7) special
8) favorite
9) physical

2. 다음 단어의 뜻에 가장 알맞은 것과 연결시키시오.

10) topic ▪ 끔찍한
11) mind ▪ 자랑스러운
12) lead ▪ 도착하다
13) reach ▪ 마음
14) proud ▪ 주제

15) terrible ▪ 이끌고 가다

3. 다음의 공란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16) They eat _____ .

17) He is not _____.

18) I had a _____ dream.

19) His bad _____ shortened his life.

20) The accident _____ there.

21) They _____ hands.

<보기> happened plant stupid shake strange habits

C.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1) society

2) addition

3) rule

4) divide

5) contain

6) consider

7) tiny

8) social

9) diverse

2. 다음 단어의 뜻에 가장 알맞은 것과 연결시키시오.

10) mistake ▪ 죽음

11) death ▪ 유사한

12) connect ▪ 다양한

13) survive ▪ 실수하다

14) various ▪ 생존하다

15) similar ▪ 연결하다

3. 다음의 공란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16) Her style is very _____.

17) It is a rare _____ of roses.

18) The medicine took instant _____.

19) A long tunnel _____ the mountains.

20) His _____ manners pleased me most.

21) The ship _____ in the fog.

<보기> pierces species disappeared unique effect polit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박정란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수화통역학과
330-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Tel: (041) 570-4164
Email: jrpark@kornu.ac.kr

이현구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330-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Tel: (041) 570-7965
Email: hglee@kornu.ac.kr

임정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12-715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Tel: (053) 850-4125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in October, 2008
Reviewed in November,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8